

제45회 정기포럼

---

재난재해와 해외자원봉사운동  
-쓰나미 피해를 계기로

---

- 일시 : 2005년 2월 28일 (월) 오후 2시 ~ 5시 3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 주최 : 한국자원봉사포럼
- 후원 : 삼성사회봉사단

##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원봉사포럼(Korea Volunteers Forum)은 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전략과 사회적 이슈들을 자원봉사학자 및 중견관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학회 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 임원구성

·회장 : 이제훈 (삼성사회협력위원회 상임고문)

·총무 : 이성록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고문 :

최일섭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대 회장)

이윤구 (대한적십자 총재, 한국자원봉사포럼 2대 회장)

조해녕 (대구광역시 시장, 한국자원봉사포럼 3대 회장)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 한국자원봉사포럼 4대 회장)

·운영위원

고진광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사무총장)

구혜영 (광진구자원봉사센터 소장)

김길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김성경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김성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배 (한국청소년개발원 전문위원)

김통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옥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

민경춘 (삼성사회봉사단 상무)

박영숙 (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

박재진 (<주>미러텍 사장)

박현경 (강원도청보건복지 여성국장)

설계현 (경상남도자원봉사협의회 회장)

이강현 (불런티어21 사무총장)

이상진 (학교자원봉사연구회 회장)

이성철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창호 (중앙일보 전문위원)

정갑진 (새마을중앙회연수원 부원장)

최성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 사무국

우) 100-151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58-1 청양빌딩 9층

Tel : 02-737-1082

Fax : 02-737-1083

E-mail : kovofa@hanmail.net

H-page: www.volunteerforum.org

간사 : 오시영

## 차 례

포럼일정 ..... 1

시민자원봉사헌장 ..... 2

### 발제 1

재난재해와 해외자원봉사운동

- 쓰나미 피해를 계기로

..... 3

**윤현봉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발제2

쓰나미 대재앙

..... 25

**육광남 (재해극복범시민연합 이사장)**

### 지정토론2

고령화 사회와 자원봉사운동

..... 31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 지정토론3

노인과 자원봉사

..... 33

**임춘식 (한남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4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단체 지원방안에

관한 토론

..... 39

**김명제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전문강사)**

포럼(회원)입회 신청서

# 포럼 일정

13:30~14:00      등록 및 접수

14:00~14:20      개회식

- 국민의례
- 시민자원봉사헌장 낭독
- 개회사 : 이제훈(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14:20~16:00      주제 발표 및 토론

- 주      제 : “고령화 사회와 자원봉사운동”
- 발 제 자 : 김동배(연세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박수천(질병관리본부 국장)  
                  주명룡(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임춘식(한남대학교 교수)  
                  김명제(성남시자원봉사센터 전문강사)

16:00~16:30      전체토의 및 폐회

# 시민자원봉사헌장

## 서 문

새 천년 인류는 세계평화와 번영, 풍요로운 삶을 더욱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계층간의 이기주의와 가족기능의 약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파생시켜 진정한 민주시민 공동체 사회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현대의 공적 사회제도는 개인의 존엄성을 충족시켜줄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발전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자원봉사는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천년을 향해 나아갈 기본 방향이다. 인간에 대한 순수한 인도주의의 발로이며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등불이다. 그래서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고 믿는다. 자원봉사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가없이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공익적 활동을 의미한다.

## 기 본 정 신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민주시민공동체 형성과 성숙을 위한 필수적 활동임을 믿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긴다.
- 우리 시민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아성장을 꾀하고 잠재력을 개발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개인의 성장과 사회발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 우리시민은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보완적 동반 관계에 있는 정부와 서로 협력한다.

## 행 동 강 령

- 우리시민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원봉사 대상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모든 특성에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원봉사 기관은 이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우리시민은 개인적 특성과 능력 그리고 희망에 상응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우리시민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 대상자 및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지킨다.
- 우리시민은 성공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봉사기관내의 다른 구성원과 협력하며 필요시 지역 및 국제적 연대를 통해 봉사활동의 목적을 달성한다.



발제 1

# 재난재해와 해외자원봉사운동 -쓰나미 피해를 계기로

윤 현 봉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재난재해와 해외자원봉사운동

## - 쓰나미 피해를 계기로

윤 현 봉<sup>1)</sup>

### 1. 시작하는 글

이제 쓰나미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나 엄마 잃고 우는 어린이의 사진은 신문 1면에서 사라졌다. 이제 다시 우리는 일상적인 일들로 돌아왔지만 남아시아의 각국에는 아직도 그 상흔들이 남아 원래도 가난했던 사람들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해일이 닦치는 장면을 뉴스로 보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수십만에 이르는 사상자와 수백만의 이재민을 낳고 세계 각국의 관심아래 구호경쟁까지 낳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우리 사무실에도 가히 해일처럼 업무가 밀어닥쳤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남아시아 피해 복구를 위해 처음에는 60만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며칠 사이에 200만 불로 그리고 다시 긴급구호자금 5백만불, 향후 3년간 4천 5백만불, 도합 5천만불로 늘리는데 1주일도 안 걸렸다. 대책회의의 성격도 외교부 차관 주재였다가 장관 주재로 바뀌더니 그 다음 주에는 다시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만관합동대책협의회로 발전하였다.

나라 밖에서도 ‘군비경쟁 보다는 구호경쟁이 낫다’며 미국과 일본, 독일과 호주, 중국 등이 앞 다투어 수 억 달러의 지원금을 약속하는가 하면 언론들이 앞장서서 세계 속에서 존경받는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말해주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현장에 자원봉사를 가겠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 2. 한국NGO의 긴급구호 활동

---

1)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 박사과정 수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기획연구부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2.1 긴급구호란?

긴급구호란 말 그대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활동으로 의식주 보장, 및 인간의 기본적 삶에 필요한 구호활동을 말하며 전쟁이나 분쟁으로 인한 <난민>과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이 그 대상이 된다.

<전쟁난민>에 대해서는 UNHCR이 나서서 난민의 법적 지위를 제공할 뿐 아니라 CARE, Save the Children, World Vision, Oxfam, MSF(국경없는 의사회) 등의 협력 NGO들과 사전 전략회의를 갖고 업무를 배정하는 일을 맡는다. 이들 단체들은 수시로 제네바의 UNHCR 사무소를 중심으로 세계 난민동향회의를 주재하며 난민 이동과 관련된 인력배치와 물자배분을 우선적으로 맡아 하고 있다. 그 외의 NGO들은 UNHCR 활동의 부분적 업무를 현지 사무소를 통해 협의, 협력하여 일할 수 있다.

<재난>에 따른 구호는 철저하게 현지국가의 주권 하에서 그 정부와의 사전협약에 따라야 한다. 특히 당사국의 긴급대처 능력이 큰 경우에는 외국 NGO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다. 실제로 이란 밤 시의 지진사건 때 이란 정부는 다른 나라 NGO의 입국을 자체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고 이번 쓰나미에도 인도는 구호물자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다른 이웃나라를 돕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입장 외에도 현장의 상황에 따라 구호활동의 요구나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의 경우에는 사전에 훈련된 전문조직이 필요하며 119 구조대와 같은 생명구조대의 기능이 핵심이 된다.

월드비전은 긴급구호의 범주를 셋으로 나누고 각 범주에 따른 재난대처 기준을 정해 세부 지침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인력 면에서는 긴급구호팀을 국제적으로 혹은 지역별 풀체로 운영한다. 약 600만불에 이른다는 긴급구호자금을 따로 꾸려뒀다가 쓰고 나서는 다시 채워두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긴급구호물품은 전 세계의 전략지역에 사전 배치해 두고 있다.(월드비전 긴급구호 매뉴얼 참조) 일이 나면 그때야 무조건 언론사를 끼고 현장에 가고 보는 우리의 여건에 비하면 실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2.2 한국NGO의 긴급구호활동 역사

한국의 NGO가 긴급구호 활동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94년 8월 르완다 난민 구호사업에 굿네이버스와 기아대책이 참여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 이라크전쟁(2003), 이란지진(2003) 등 경험을 더 해 갈수록 참여단체 수나 활동내용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표1 참조)

## 2.3. 자원봉사자 파견, 어떻게 할 것인가?

적십자사나 월드비전과 같은 국제적인 NGO들은 이미 긴급구호에 있어 군대조직이나 정부조직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긴급구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평상시에도 난민동향에 관한 회의를 통해 서로 정부를 공유하며, UNHCR은 텐트, Oxfam은 식수, MSF는 의료, CARE는 식품, LWF는 수송을 전문으로 하여 다종다양한 비행기를 확보해뒀다가 예비한 약품과 물자를 긴급하고도 체계적으로 배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 국제NGO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국내 언론의 홍보에 기대



어 모금과 관심을 끌기 위해 어느 단체가 최초로 현장에 들어갔는가를 겨루는 수준인 것이다. 사실 긴급구호 현장은 한비야씨가 늘 주장하듯이 시급을 다투는 응급수술 현장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아마추어가 가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 십상이다.

저개발국의 경우에는 넘쳐나는 것이 인력인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가서는 오히려 현지의 부족한 물자를 축낸다든지, 적어도 그들이 현장까지 갈 여비면 수천 명의 목숨을 살려낼 수 있는 비용을 낭용하게 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국내의 재해 현장에도 높은 분이 다녀가시면 그 뒤치다꺼리로 구호활동에 방해 받는다는 비판이 큰데 저개발국의 경우에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이어서 국제 NGO들 간에는 한국NGO의 과잉 의욕이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경험 없이 전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한국의 긴급구호활동 단체들이 가진 딜레마다. 전문성과 준비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국제 NGO의 활동을 연구해야 하며, 난민 정보나 기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수정예의 전문 인력을 기르는 한편, 국제기구 및 NGO와 협력하기 위한 채널을 상시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모처럼 나라 밖의 이웃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인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 분야에서 일하는 우리들이 고민해 봐야 할 과제이다.

### 3.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역을 위한 한국NGO의 활동

긴급구호,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구호활동의 경우는 처음 일주일 안에 핵심적인 사업을 마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생존자 구출 등의 활동은 처음 1~2일이 지나면 거의 사체 발굴로 바뀌게 된다. 다만 다른 나라 NGO의 도움이 필요할만한 나라는 대개 재해 이전부터 낙후된 경제적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식량, 보건, 의료 등의 요구가 높아서 NGO의 의료, 식량배급, 전염병 예방 사업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번에도 지진 난지 이틀만인 28일 화요일,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에서 꾸린 의료단이 인도네시아로 출발하였다. 마스크가 발달하지 못한 현지의 내륙에서는 현지인조차 지진 사실을 미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다. 같은 날 MBC가 월드비전, 적십자사와 함께 생방송을 시작하였고, 하루 이틀 사이로 KBS, SBS가 뒤를 이었다. 회원단체에서는 2~3 명씩 선발대 형식으로, 주로 스리랑카로 떠나기 시작하였다. 해원협에서는 중앙일보와 함께 긴급구호를 시작한 10여 개의 단체들의 활동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회원단체들 간에 비행기 표 구하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고, 1월6일 인도네시아에서 구호를 위한 세계정상회담이 열리자 이해찬 총리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기아대책과 굿네이버스 그리고 각 시도의 의료팀, 방역팀과 함께 구호물자를 싣고 떠났다. 그 며칠 사이에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구호물자를 실은 비행기가 공항에 몰려 활주로 확보가 어려워 덩치 큰 비행기는 착륙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도로가 유실되고 반군이 있는 지역에서는 아무리 구호물자가 넘쳐나도 실어 나를 방도가 없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남아시아 지진해일 대책반이 외교부에서 꾸려져 영사국 중심의 한국인 신원확보를 위한 활동과, 국제경제국 중심의 현지 구호개발을 위한 대책반이 꾸려져 거의 매일 회의를 하였다. 사태를 파악하고 필요사항을 서로 따져 가며, 119 구조대원과 신원확인을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요원을 파견하는 한편, 앞서 말한 구호자금의 대폭확대와 군수송기, 특별기 그리고 해군선박 2정을 구호물자 수송에 투입하였고 자원봉사자를 위해 항공료의 75% 할인을 해주는 항공사의 협조도 이끌어냈다. 현지까지의 항공료와 물자 수송비 부담이 큰 사업의 특성이 반영돼 NGO로서는 정부의 도움 내지는 지원을 받은 셈이다. 그 과정에는 앞서 말한 대로 외교 차관 주재 사고대책 회의가 장관회의로, 다시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재경부 외교부등의 12개(?) 부처 장관, 각 정당대표, 경제4단체장, 그리고 해원협, 적십자사,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유니세프, 공동모금회, 등의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대책회의가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커져가자 정부가 매우 신속하게 회의 규모도 키워나갔다.

해원협은 민간단체의 창구가 되어 현지에 나가려는 봉사요원이나 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까지 안내하는 일을 맡았다. 설 새 없이 울리는 전화 사이사이로 십여 개에 달하는 회원단체의 활동상황과 모금실적 까지 모아 표로 만들었다. (표2. 참조)

적재량이 8톤이라는 수송기와 특별기 그리고 해군 수송선 까지 회원단체의 물품을 모아 공항이나 부두로 선적 방식까지 맞춰가며 실어내느라 수많은 국방부 중령과 소령 그리고 대령들과 통화를 해야 했다. 적은 인력으로 전혀 모르는 분야의 일을 그것도 한정된 시간 안에 수많은 부서를 조정해 가며 일을 하느라 골탕도 먹었지만 배운 것도 많았다.

#### 4. 모금활동

모금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렇듯 할 말이 많다.

해일이 닥쳤을 때 그 임팩트가 이렇게 크리라는 것을 아무도 예측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5000만 달러의 공적자금 외에도 민간 모금액이 수백억에 달하게 될 줄은 몰랐다. 어떨 곁에 경제 4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민간 모금은 대한적십자사로 창구 일원화하게 되었다. 해원협은 물론 우리가 회원단체의 이익을 대변하여 창구역할을 하며 업무조정을 주요 목표로 하는 단체인 만큼 단일화를 하자면 창구는 해원협이 돼야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역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도와 준 기업모금이나, 방송이나 신문사를 통한 모금이 고스란히 적십자사로 가서 적십자사 마크를 달고 인도네시아의 적십자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에잇 분하다!)

그러나 크게 봐서는 해외원조의 민간모금 현황이 수백억에 달하도록 온 국민의 온정과 관심이 모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위로하는 바가 있었다. 한편 적십자사로 창구 일원화하는 동안에도 <나눔과 기쁨>이 10억, <굿네이버스> 7억, <월드비전> 5.5.억, <해원협> 5억, 그리고 <시민단체연대>가 1억, 도합 28억 5천의 모금 목표액이 정해져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 적십자사는 처음에 30억, 이어서 100억 다시 200억으로

허가액을 늘렸다. 해외원조를 위한 단일 모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인 것 같다.

또 하나!

긴급구호활동은 초기 일주일의 관건이라는 점은 앞서 지적하였다. 한국NGO의 해외사업부는 많아야 서너 명의 인력을 가지고 세계 각지의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다가 긴급 사태가 일어나면 그대로 그 직원들이 특공대가 되어 현장으로 뛰는 한편 언론과 정부 그리고 후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동시에 모금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단체는 사건 발생 다음 날부터 언론과 함께 일하면서도 우리 후원계좌를 쓰지 못했다. 모금허가를 얻는데 무려 열흘이나 걸렸기 때문이다. 민관합동회의에 참가해 그런 애로사항을 하소연하고 행자부와 국무조정실에서 도와줬는데도 모금목표액 5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관할 구청을 통해 올라간 서류가 서울시의 담당자 손을 거쳐 승인이 나는데 꼬박 1주일이 걸렸다. 처음 3~4일은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 바쁜 와중에 이리저리 전화하다가 사흘을 보냈다.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실제로 승인이 났을 때는 중앙일보와의 공동캠페인이 끝나는 바람에 모금계좌 번호를 실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일선의 공무원을 개인적으로 타할 마음은 없지만 법과 규정에 매여 정작 긴급한 사업에 대처를 못하니 법을 지켜가며 일하려는 의욕이 꺾이게 된 단적인 예다.

## 5. 향후 과제

### 5.1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

이번 쓰나미 피해지역을 위한 사업의 담당 창구로서 제일 큰일은 그야말로 해일처럼 밀려오는 자원봉사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일이었다. 당장 반다 아체로 보내달라는 설악동지회나 해병전우회로부터 “중학생도 갈 수 있어요?” 라는 전화까지. 자원봉사운동 10년의 성과로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성숙하여 이제 해외로 까지 눈을 돌리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 같다. 특히 어학연수와 국제화 바람, 그리고 국제대학원의 신설 등으로 젊은이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긴급구호 현장은 열의만 가진 비숙련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현장이 아니다.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 가면서 동시에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기술, 말하자면 의료지식이나 생명과도 같은 식수와 식량을 확보하고 문제없이 분배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이 필요한 곳이다. 따라서 사전 훈련과 교육, 숙련된 경험, 체계적 정보와 현지 인력 혹은 네트워크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히 폭발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를 평소에 수렴하여 전문인력화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 5.2 민관협력의 자료 축적과 긴급구호에 대한 대비

이번 쓰나미 피해복구를 위한 민관합동대책협의회의 가동으로 정부부처나 경제계,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서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업무를 분담하여 정보를 모으고 수송부담이라든가, 봉

사자의 항공료 할인, 모금 창구 일원화, 그리고 중,장기 계획의 수립까지 서로 협조하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모처럼의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협력 내용이나 성과 등을 다져 보고 개선점을 찾아 기록으로 남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적자금 따로 민간모금 따로 제각각인 해외원조 사업의 성과를 함께 모아서 자료제공, 성과보고 체계의 효율적 관리도 필요하다.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일은 우선 자료축적과 정보공유, 평상시의 전문가 교육과 재난구호금의 비축 등이 될 것이다. 현행 모금법의 절차상 긴급구호에 맞지 않게 허가기간이 오래다는 점은 앞서도 지적했거니와 용도에 있어서도 꼭 당해 피해복구에 만 써야한다는 제한 때문에 다음의 재난을 대비하는 교육이나 비축금 마련, 혹은 구호활동가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등에는 쓸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 NGO로서는 꼭 일이 닥쳐야 비로소 모금도 하고 홍보도 하느라 역시 전문적으로 대처할 여력이 없게 되는 실정이다.

### 5.3. 구심점의 필요

한국의 NGO들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의 지진 그리고 용천의 폭발사고 까지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 재난 지역에 동참하면서 국제 NGO들의 전문성에 놀라는 한편 우리 스스로 힘을 모아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막대한 ODA 자금을 가지고 <Japan Wind>나 <Platform>이라는 일관된 이미지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을 본받아 우리도 단체 간의 경쟁을 접고 중복을 피해 한국의 이름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깊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해원협의 할일이 많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 발제 2

# 쓰나미 대재앙

육 광 남

<재해극복범시민연합 이사장>



# 쓰나미 대재앙 - 두 달이 지난 요즘

육 광 남<sup>1)</sup>

재난 대비가 되지 않을 경우의 그 피해를 당한다는 생각은 나만의 느낌이 아니길 바란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가 많은 재난을 당할 때 마다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나게 우리 모두를 경악 하게 한다.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번 쓰나미(지진해일) 대 재난 소식을 접하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동안 몇 차례 지구촌에 크고 작은 지진과 해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재산을 잃었다. 그러나 이번의 서남아시아 대 지진과 해일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기는 했지만, 오히려 많은 부분이 인재(人災)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재난에 대한 지식과 경보 체계가 잘 되어 있었다면 그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과 자국의 관광 산업에 대한 지장을 염려하여 늦은 대응을 한 탓에 삼십 여 만 명의 사망자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실종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그 동안 지상 낙원으로 가꾸고 지켜왔던 아름답던 관광지가 일순간의 재난으로 자연과 각종 시설물이 폐허만으로 남게 되었다.

지구촌 여러 곳에서 해일과 지진 등으로 사람들이 희생당할 때마다 복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재앙이 올 것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꼭 필요한 경고이다.

이번 서 남아시아 지진 해일이 일어난 수많은 피해 국가 들 가운데 특히 한국인의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태국 푸켓 지역에서 인명구조와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실종자 수색 등 인명구조 현장에서의 10박 11일 동안의 구조 활동을 통한 본인의 체험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 1. 남아시아 지진 해일 소식을 접하고

텔레비전을 통해 희생자가 수천 명이며 점점 희생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뉴스를 처음 접하면서 이번 재난이 실로 엄청난 재난임을 알게 되었다.

---

1) 재해극복범시민연합 이사장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대한항공 콰 추락사건, 김해 중국민항기 추락사건과 10여 차례의 여러 수해현장의 구조 경험을 가지고 있던 나는 나의 경험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웃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진 사태라는 것만으로도 빨리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 활동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바빠졌다. 동분서주를 하며 참가 희망자를 물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항공비등 경비를 조금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관계 당국에 문의도 해 보았지만,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하였고 중요한 시간만 낭비한 것 같은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다.

재민련(사단법인재해극복범시민연합) 회원 중에 참가 신청자는 수십 명에 달했지만, 자신의 부담으로 외국까지 가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회원들은 몇 명 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나자 속속 보도되는 뉴스마다 피해 현장의 희생자 수는 순식간에 늘어 2만~3만 명으로 추산되자 나는 더 걱정스러웠다. 또 5만 여명으로 불어나자 내 부담으로도 하루 빨리 현지로 달려 갈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본인이 가끔씩 참여하고 있는 한국구조연합회 대원들이 KOICA (한국국제협력단)의 경비지원으로 다음 날 30여 명이 태국 현지 구조 활동을 위해 출국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급히 본인의 단체회원들도 연합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았으나 여러 준비 관계상 어려움이 많아 나 혼자만이라도 구조대원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만 했다.

## 2. 구조 활동을 위한 각오와 가족들의 반대

막상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평소에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처지로 살아가는 나에게, 그 많은 일들을 접어두고 며칠이 아닌 2주 이상을 각오하며 한국을 떠나 있어야 하는 것은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로 했다.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여권을 챙기고 내가 없는 동안 가족이 대신해 주어야 하는 많은 일들을 체크해 가면서 현지로 떠나기 전 말라리아 예방주사와 약을 처방 받고, 준비물 등을 챙기는 시간으로 갑자기 더 바빠졌다.

구조 활동을 결심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준비에 몰두하고 있을 때 현장에서의 위험성과 전염병에 대한 염려보다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가족들의 거센 반대였다. 그것도 현장 속보와 특집 등으로 보도되는 현장의 참혹함과 전염병. 그리고 어찌면 여진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해일 등에 대한 가능성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가족들의 반대는 더 심해졌다.



"왜 당신은 언제나 위험하고 어려운 곳에는 꼭 참가하려 하고, 지금 벌여 놓은 일들은 누가 할 것이냐."며 반대하는 가족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온통 시신들이 길에 즐비하게 늘어져 있고 악취가 심하고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를 보며 나 자신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앞장서서 구조 활동을 해야겠다는 의지는 더욱 확고히 굳어져 있었다.

아내는 위험을 무릅쓰고 외국에 가서 구조 활동을 벌여야 할 이유가 있는 지와 또 해일이 닥치면 가족과 영영 헤어질 수도 있다면서 극구 반대를 하였다. 하지만 나의 굳은 결심에 가족들은 안전과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마지못해 승낙을 하였다.

비록 출발은 하게 되었지만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부상자들과 그의 가족들, 수많은 여행자들의 실종 소식으로 이토록 늦은 출발이라 무거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어느 재난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한 출발이기 때문이다. 사건발생 4일 만의 출발. 구조대원이 아닌 수습대원으로의 늦은 출발이지만 그래도 현지에서의 활동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미리 대비한 경험을 한다는 생각으로 출국하게 되었다.

정부에서 중앙119구조대의 신속한파견과 인력지원에 소극적 이였고 민간구조대에의 지원도 적극적이어야 하고 피해국이 10여 개국이나 되기 때문에 119구조대원이나 민간구조 단체에 지원을 아끼지 말고 여러 나라에 급파했어야 했다.

### 3. 태국 푸켓 현장의 모습

태국 푸켓은 직항로가 폐쇄되어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느라 새벽에 출발했지만 늦은 밤이 되어서야 대책본부에 도착을 했다.

대원들은 질서 있게 대책본부 주변 잔디밭에 천막을 치고 타국에서의 첫날밤을 준비하고 분향소에 들러 대 재앙에 희생된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빌었다.

다음날 먼동이 트자 시야에 들어오는 광활한 피해현장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아비규환 이였다.

거의 모든 건축물들은 이전의 흔적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었다. 군데군데 쓰러져있는 건물기둥들이 있어 사람들이 살던 곳 이었구나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태산 같은 해일에 쓸려 가버린 것 이였다.

동네가 운동장처럼 황량한 들판같이 변 해 있고 레저를 즐기던 많은 관광객들이 단번에 희생 된 것으로 보이고 수영복이며 스쿠버장비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현지관광객을 상대하는 한국인가이드를 만나 피해 첫날부터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다. 붕괴된 건물 한 채 주변에서 100여 구의 시신을 수습했노라며 당시의 상황을 상기하며 충혈 된 어조로 설명을 해주었다.

해일이 닥친 3일 후인 29일에서야 이곳 휴양지 재해 현장에 고작 중장비1대가 들어왔다고 한다.

대부분 사망자들은 수습이 되었지만 부서진 건물터미 속에서는 악취가 새어 나오고 있어 중장비의 도움 없이는 발굴이 어려웠다. 떠밀려온 보트와 자동차들이 뒤엉켜 앙상한 물골을 드러내 놓고 있었고 또한 커다란 요트와 자동차가 건물 지붕 위에 얽혀 있는 곳도 있고, 자동차들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뒤집히고 찌그러져 당시의 참상을 반영하듯 방치되어 있었다. 원형을 갖춘 건물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주변해안일대에 60여 개나 되는 리조트 들이 거의가 초토화 되었고 천혜의 절경들은 대부분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우리는 육상 수색 팀, 전염병 예방 방역 팀, 해상 수색 잠수부 팀 등으로 나뉘어 각 팀 당 5명씩 조 편성을 하여 나뉘었다. 각자 맡은 임무가 있었는데 나의 주 임무는 사체 수습이었다.

시신냄새가 심하게 나는 곳을 찾아 수색해 보면 대부분 얼마 전에 시신을 수습 해 간 자리가 일수였다. 구조대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 한 카크카 지역 밀림 속에서 시신 1구를 발견하고 엔진 톱으로 나무를 자르며 밀림을 헤치고 시신을 운구해 나오는데 3시간 이상 걸린 적도 있었다. 다음 날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밀림은 코브라 뱀이 득실거려서 원주민도 수색을 기피하는 곳이었다.

날씨는 우리나라의 가장 더운 여름 날씨와도 같아 고온 다습한 날씨 때문에 온몸이 땀에 범벅이 되고 시신들은 이미 국적이나 남녀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으며 악취가 먼 곳까지도 진동하여 마스크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대원들은 한결같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도록 힘을 아끼지 않고 보통사람들이 해내기 어려운 곳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사체 수습을 하고 나면 힘든 일을 해 내었다는 자부심과 보람은 컸다.

카오락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에 해군 함정이 밀려와 좌초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건물기둥이 도미노같이 한꺼번에 나란히 휩쓸려 내리치는 물의 방향으로 쓰러져있는 것들을 보면서 대 재앙의 위력이 얼마는 큰 것인가를 상상이 되지가 않았다. 아름답고 호화스럽던 많은 리조트 들이 거대한 해일 앞에서는 한낱 모래 위에 쌓은 모래성에 지나지 않았다.

해안부근의 바다 속에 침몰되었다는 해군함정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태국 해군과의 합동 수색작업을 오랫동안 벌였으나 결국 바닷물의 시야가 좋지 예상되는 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결국 찾지를 못하고 많은 대원들의 고생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귀국을 하게 되어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지에서의 분위기는 한국중앙119구조대 활약이나 한국국제 협력 단 의 활동이 다른 나라 구조대에 비해 모범적인 것 같았다.

일본소방청에서 파견된 대원들도 우리의 활동에 비해 소극적인 인상을 느꼈다.

해저의 산호초들도 거의 유실되어 원상복구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하고, 인명 피해 뿐 아니라 그토록 넓고 많은 피해지역의 복구는 언제까지 가능할 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방역 소독을 열심히 한 덕분에 그토록 심한 악취도 많이 견디고 하루10시간이상의 사체 수색을 쉬지 않고 할 수 있었으며 파리와 말라리아 모기때도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콜레라. 이질 같은 수인성질병을 조심해야 했고 모기가 무척 많아서 모기장관리를 잘해야 했다. 그리고 체력관리를 위해서 새벽 동트기 전에 일어나 5~6km를 달리면서 나뭇대로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노력했다.

재난 발생 1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조기 수습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역들은 것처럼 지옥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지역 주민들은 이미 수색을 하여 사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계속하여 발굴을 해내는 한국의 구조대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시해 왔다.

웅덩이의 물을 양수기로 퍼내면 여지없이 시신들은 진흙 속에 처참한 모습으로 꼬꾸라져 처박혀 있었고, 냇가의 온갖 쓰레기와 부유물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는 사체들이 부패해 가며, 물까지도 진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내에서 챙겨놓고도 짐이 많을 것 같아 놓고 온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가 있었다면 더욱 적극적인 수색활동을 벌일 수 있었는데 사소한 준비물을 하나 두고 온 것이 두고두고 아쉬웠다. 물이 썩은 정도가 심해 맨몸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그만 1인용 보트를 타고 저수지 속의 부유물들을 헤치면서 수색을 해 보기도 했으나, 온갖 큰 목재 각목들이 겹겹이 쌓인 쓰레기 건물 잔해 등은 보트 위에 있는 사람의 힘을 비웃는 듯했고, 나는 무력함을 느끼게 되었다.

가축들의 사체는 손을 쓸 여력이 없어 수거하여 매장하기도 전에 이미 파리와 애벌레, 고자리 떼로 인해 형체가 없어지고 뼈와 털만이 남아 있을 정도로 부패 속도가 빨랐다.

살아있는 떠돌이 개들도 여기저기 많이 있었다. 상처투성이 개들이 주인을 잃고 보살피 주는 이 없이 허기진 채 굶주리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상처가 악화되어 가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도 전염병과 전염성피부염이 염려 되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개들한테 신경을 쓸 여력이 없기는 하지만 애처로운 마음 금 할길 없었다.

출발할 때 나의 주 임무는 신원이 미확인된 시신의 얼굴 등 부패 진행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가져간 포르말린 방부제 처리였다. 독극물이라서 경험이 없는 대원들은 다룰 수 없는 약품이었고, 나는 담력과 악취를 가장 견딜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과 사체를 가장 많이 접해 본 경험을 인정받은 셈이었다.

이곳에서 가까운 불교사원에 몇 친구의 시신이 노상 안치소에 그냥 있다는데 부패하고 훼손

손상태가 심해 신원확인이 어려운 처지인데도 시신 확인에 적극적이지가 않았다. 실종자가족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내 신원확인작업을 하는 시늉이나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현지의 사체 안치소에서는 부패방지 보존 작업을 원하지 않았다. 냉동실에 안치되지 못한 시신들의 보존이 조금이라도 잘 되어 있다면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르는 DNA 검사 등의 신원 확인 절차가 대폭 간소해지는 것을 몰라서 그러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0박 11일간의 구조 활동 시간은, 원숭이해의 마지막 즈음에 집을 떠나 닭띠의 해에 귀국했으니 2개년에 걸친 체류 기간이 되었다.

그러나 요즘은 세계가 하루 생활권에 걸맞게 국내의 핸드폰이 그대로 멀리 태국에서도 그대로 통화가 되는 국제 자동 로밍 서비스가 있어 송년 신년 인사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까운 지인들과의 소식을 접하다 보니 다행히 집과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외로움 등은 많지 않았다.

정릉 뒷산에서 신년 해돋이 행사 약속을 해 놓고 멀리 남쪽 태국 푸켓 카오락 에서의 새해맞이는 지금껏 매년 해 왔던 소망처럼 이 아닌 가족과 나라의 평화에, 세계의 안녕까지 빌게 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 4. 우리에게 남은 교훈

그 동안 평화롭고 맑고 깨끗했던 세계적인 휴양지로서, 세계 최고의 고무나무 생산국이며 살기 좋은 나라가 이처럼 큰 재난을 당해 넓고 긴 국토 해안일대의 고급스러운 리조트 들이 일시에 초토화된 폐허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의 서해 또는 일본 부근의 동해에 큰 지진, 해일이 난다면 하는 상상을 해 보면 똑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도 귀결될 것이다.

이번의 남아시아의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자연재해의 무서움과 잔혹성을 제대로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인간의 추정을 불허하는 자연재해의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온 것이다. 그 대상이 부자든 가난한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가리지 않고 순식간에 집어삼킨 것이다.

이웃나라들의 어려움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발 벗고 나서 도와야 한다. 시설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재앙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며, 이것이 단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남아시아의 대 재앙은 우리나라에게는 큰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피해를 본 아시아일대의 해안은 물론 저지대에는 휴양림조성 등으로 복구를 하고 가능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은 재발생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높은 지형으로 옮기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우리도 해변근처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집을 지으려는 생각을 바꿔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재앙에 대비해야겠다.

우리나라는 기상청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인력 부족으로 장비관리문제와 최신형 관측기구 도입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단계적으로 분석지원 많은 예산을 높여서 고급인력 확보 등으로 앞으로 예산을 넘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관측하여 예방과 대처에 현실화가 급선무다.

우리나라도 전국해안일대에 해일경보 시스템과 낮은 해안지대는 제방을 높이 쌓고 위험이 예상되는 곳의 안전보완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장기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해일 경보 시 신속하게 고지대로 대피를 하는 평소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에 고루 재난예방 감시단원을 위촉하여 많은 국민모두가 관심을 갖게 하고 재난 예방에 공헌을 한 사람에게 포상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 연구 기관을 법으로 확충하고 지원도 현재의 상황에서 배 이상 높여야 하며 인원 고급 확충 충원도 필요하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경청해야 한다.

피해 예방비용보다 수 십 배가 넘는 재해복구 보상비를 쓰기 보다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전 대비와 예방 감시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특히 국민들에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재해대처 방안에 대하여 미숙하며 신고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면 회피하는 경향 등의 문제가 있는데 관계부처와 공조를 하여 초. 중. 고. 대. 군부대. 공무원. 직장민방위. 부녀회. 각종사회단체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자연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이번 대지진을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철저한 예방과 조속한 대응 능력을 길러야 하겠다.





지정토론 1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지원

조 현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지원

조 현 1)

## 1.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정부지원

가. 기본 방향 : 2005-7년간 총 5천만불

### 1) 긴급 구호 지원 : 5백만불

- 현금 지원 완료(1.13) : 8개 피해국에 총 약 200만불
- 물자 지원 추진중 : 4개 피해국에 총 200만불
- KOICA를 통한 인력 파견 지원 등

### 2) 중장기 재건복구 지원 : 4천5백만불('05~'07년간)

- 구체 재건복구 소요 및 정부조사단 파견결과 등을 감안하여 국별 지원 Package 작성 중  
- 각 부처가 제안하는 사업도 가급적 반영 추진
- EDCF(유상원조)도 총 5,000만불 범위내에서 피해국들의 재건복구를 위해 제공 예정

## 나. 세부지원 계획

### 1) 국별 지원

- 피해 정도, 재건 복구 수요 및 아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원금 결정  
- 인도네시아(1,500만불), 스리랑카(1,500만불), 태국(500만불), 몰디브(200만불) 등
- ※ 현금은 기지원, 물자는 2월중 지원, 재건복구지원은 금년부터 3년간 지원

### 2)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 UN을 중심으로 금번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관련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UN의 분야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

---

1)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국장

3) 인력파견지원

○ KOICA를 통해 NGO 및 KOICA 봉사단원 지원

다. 기타 지원 현황

○ 군 수송기(C-130) 파견(04.12.31 스리랑카), 군 보급선(LST) 파견 (05.1.14 인도네시아, 05.1.27 스리랑카)

○ 119구조대, 의료지원단, 긴급복구단 및 자원봉사단, NGO 등 파견·활동중

2. 남아시아 지진·해일 관련 민간 차원의 지원

○ 민간차원에서 총 4,700만불(480억)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지원중

- 적십자사 191억, 기타 NGO 및 기업 289억 모금 및 지원

○ 구호활동 및 의료활동 지원을 위한 NGO 자원봉사자 약1,400명 파견

- 스리랑카 749명, 인니 491명, 태국 130명, 인도 47명 등

3. 향후 우리나라 ODA 추진방향

가. ODA 확대 추진

1) 우리나라 ODA 현황

ODA 지원실적('98 - '03)

(단위 : 백만불)

구 분	'98	'99	'00	'01	'02	'03
ODA	182.7	317.5	212.1	264.6	278.8	365.9
양자원조	124.7	131.3	131.2	171.5	206.8	245.2
무상원조	37.2	38.9	47.8	53.0	66.7	145.5*
유상원조(EDCF)	87.5	92.4	83.4	118.5	140.1	99.7
다자원조	58.01	186.1	80.9	93.1	72.0	120.7
ODA/GNI(%)	0.058	0.079	0.047	0.063	0.06	0.06

※ 대이라크지원(40백만불), 아프간지원(21백만불) 포함

무상원조

○ '91년 KOICA 설립이후 '97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97년 금융위기로 '98-'99년간 감소세를 보인 후, '0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93년 33백만불→'03년 1.4억불) -03년에 최초로 무상원조(1.4억불)가 유상원조(1억불)를 초과

○ 2004년 무상원조 현황 : 122개국 총 1.8억불(2,200억원\*) 지원

\*이라크 재건지원(660억원) 및 중동 특별지원(360억원) 예비비 1,020억원 포함

-지원비중은 아시아 68%, 아프리카 12.7%, 중남미 10.2%, 구주 7.8%, 중동 3.3%, 국제기구 1.3%의 순

※10대 지원대상국 : ①베트남(680만불), ②인니(500만불), ③필리핀(463만불), ④중국(430만불), ⑤캄보디아(348만불), ⑥미얀마(297만불), ⑦라오스(290만불), ⑧페루(190만불), ⑨태국(184만불), ⑩몽골(168만불)

#### □ 유상원조(EDCF)

○ 91년 이후 연도별 증감을 반복하면서 꾸준한 증가추세를 기록

-01년에는 처음으로 1억불을 초과하였으며, 02년에 최고치(1.4억불)를 기록

○ 분야별로는 교통(26%), 통신(23%), 에너지(12.6%), 보건(11%), 교육(7.6%) 순으로 지원

※10대 지원대상국(달러기준) : ①중국(2.33억불), ②베트남(1.82억불), ③인도네시아(1.78억불), ④스리랑카(1.77억불), ⑤방글라데시(1.25억불), ⑥필리핀(1.08억불), ⑦미얀마(85백만불), ⑧루마니아(81백만불), ⑨우즈베키스탄(77백만불), ⑩캄보디아(65백만불)

#### 2) 기본 방향 : 향후 5년간(2005-2009) GNI 대비 0.1%\*로 확대 추진

※0.1%는 OECD/DAC 회원국 최저수준(미국)

○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를 OECD DAC 회원국 평균(0.25%)의 절반수준으로 증액 추진

-매년 GNI 대비 0.01%포인트씩 확대

#### 나. 긴급재난구호 예산의 확대 필요

#### □ 동 예산규모는 국제 재난에 대한 지원수요에 크게 미달

○ 최근 전세계 재난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동 예산확대가 시급한 상황

※연도별 긴급재난구호 예산 추이 : '02년 166만불 '03년 161만불, '04년 108만불, '05년 113만불(쓰나미 지원액 제외)

#### □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지원 사례

○금번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에 대한 전폭적인 국제적 지원의 예와 같이, 인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외교적·전략적 고려하에 지원확대 바람직

다. NGO 지원 확대

□ ODA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민 참여형 ODA정책 수립 바람직

○KOICA의 대 NGO 지원규모가 증가추세인 바, 향후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위해 NGO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이 바람직

※NGO 지원규모 : 95년 5억원, 97년 7억원, 01년 9억원

-특히 이라크·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NGO 지원이 대폭 증가

라. 「무상원조 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현행 우리 원조정책이 대외적으로 선명성이 부족한 점을 감안, 종합적인 중장기 대외원조 정책 방향과 목표 설정 필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visibility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원조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방할 필요

○우리 현실과 경험에 기초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우리만의 독특한 개발경험을 반영한 원조정책을 작성, 법령 또는 정책문서로 채택함이 바람직

-ODA 이념, 구체 목표, 중장기 전략, 유·무상 조정 메카니즘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ODA 관련법은 없는 상태

○해외 긴급재난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현재 법체제하에서는 해외 긴급 재난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미약


○ODA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향후 OECD/DAC 가입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

-주요 선진국의 경우 포괄적인 국제개발협력법 또는 대외원조법을 갖고 있거나, 정책문서를 채택

※미국 :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영국 : 국제개발법(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일본 : ODA大綱, 캐나다 : 국제개발원조법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Act), 호주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원조(Better Aid for a Better Future)

○현재 「무상원조 기본법(가칭)」 초안을 완료하고 내부 검토 중

-금년 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 추진 예정 /끝/



## 지정토론 2

<대한적십자사>



# 노인과 자원봉사

임 춘 식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정토론 3

령화 사회와 노인의 자원봉사  
운동에 대한 토론

김 명 제

<서비스포피스>



# 「고령화 사회와 노인의 자원봉사운동」에 대한 토론

김 명 제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전문강사

(3) 기타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은 「노인전문자원봉사센터」에 준함



# 회원가입 안내

「한국자원봉사포럼」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아래의 혜택을 드립니다.

- 정기포럼, 세미나 자료집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포럼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매 회 포럼행사에 초청장을 받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 275-20-085456 / 제일은행 예금주 : 이제훈 [한국자원봉사포럼]  
 가입비 : 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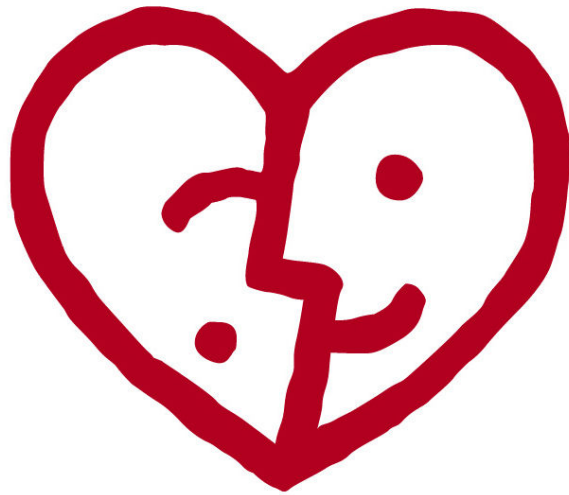
**한국자원봉사포럼**  
 KOREAN VOLUNTEERS' FORUM

(100-151) 서울특별시 중구 총정로1가 58-1 청양빌딩 9층  
 TEL : 02)737-1082 FAX : 02)737-1083  
 http:www.volunteerforum.org E-mail: kovof@hanmail.net

..... 절 취 선 .....

## 포럼 (회원) 입회 신청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영문				
소속				직위	
연락처	직장	주소	우편번호 : -		
		전화		팩스	
처	자택	주소	우편번호 : -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p>본인은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p> <p>2005. .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p>					



---

제45회 정기포럼 자료집  
재난재해와 해외자원봉사운동  
— 쓰나미 피해를 계기로

---

발행일 : 2005. 2.

발행처

**한국자원봉사포럼**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58-1 청양빌딩 9층

Tel : 02-737-1082, Fax : 02-737-1083

e-mail: kovofa@hanmail.net

---